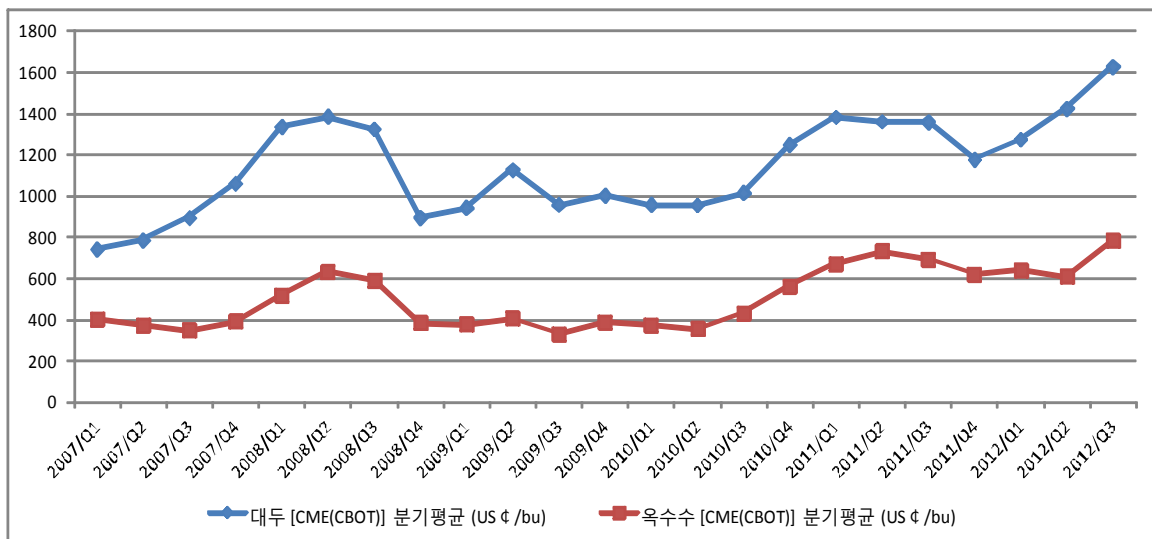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세계 곡물가격 상승과 그 영향

■ 세계 대두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의 중서부 및 내륙 서부지역에 발생한 56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에 큰 파동이 발생하였음.

-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상승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고질적인 현상으로 이미 자리 잡음.
 - 곡물가격상승의 구조적 요인: (1)인구증가: 2050년경 세계 인구는 약 90억 명에 육박하리라 예측됨 (2)개발도상국의 육류 및 가공식품 소비증가 (3) 식량생산에 투입되는 요소가격의 증가 (4)기후변화
-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2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대두의 수출은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가격이 일제히 상승한데 이어 9월 4일(현지시각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대두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그림 1. 대두와 옥수수가격의 최근 5년 추이



■ 미국은 아직까지 옥수수와 콩의 수출에 대한 엠바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차후 5개년동안 적용될 농업법(Farm bill)의 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정책변화가 제 3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큼.

- 과거 미국은 1972~73년도 세계 식량 위기 당시 자국의 곡물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03년도 대두가격 급등 때도 수출엠바고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이 엠바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최근 5년 동안의 교역총량으로 계산했을 때 과테말라, 니카라과, 차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필리핀, 나미비아 등 25개 국가들의 대두 수입에 대한 대미의존도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의 경우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한국, 중국 등 29개 국가들의 대미 수입의존도가 70%이상임.

■ G20국가들은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곡물가격상승과 수급부족사태와 관련하여 8월 28일 긴급 화상회의를 하였으며 일단 사태를 지켜보기로 합의하였음.

- 긴급회의에서 주요국들은 아시아 국가의 주식인 쌀과 아프리카 국가의 주식인 카사바의 수급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2007~8년도의 식량위기 당시보다는 그 여파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7년~2008년 세계 식량위기: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세계의 식량가격이 급등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i) 석유와 같은 생산요소가격의 앙등, ii) 바이오연료생산으로 인한 곡식가격의 상승, iii)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육류와 사료수요 급등, iv) 호주의 기상이변, v) 투기

이로 인해 아이티,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멕시코, 방글라데시 등 24개 국가 내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시위대가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아이티와 마다가스카르는 이와 같은 폭동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 생산량감소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밀 생산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의 경우 이미 2007~8년의 식량위기 당시 곤혹을 치렀던 경험 때문에 8월초 옥수수를 대량으로 매점하였음.

■ G20국가들과 UN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친 식량 위기 때 발생했던 금수조치와 사재기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9월 말이나 10월 초 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곡물가격의 추이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대처방안 결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김윤옥 연구원)